대형 보살벽화에 담은 화엄경

사찰벽화 명작순례

⑮ 김천 직지사 대웅전의 문수관음보현 보살벽화

김천 직지사 대웅전은 1735년에 중건한 정면 5칸, 측면 3칸의 건물이다. 향좌측 서측면의 내부 세 칸 벽에 세 분의 보살을 그렸다. 문수보살, 보현보살, 관음보살 세 분이다. 향우측부터 문수-관세음-보현보살 순으로 배치했다. 관세음보살을 문수·보현보살 중간에 그렸다. 직지사 대웅전 내부엔 150호가 넘는 대형 벽화가 여섯 점이나 있다. 한 법당 내부에 대형벽화가 여섯 점이나 있다는 사실은 매우 드물고도 경이로운 일이다. 여섯 점 대형벽화는 서쪽 벽면에 보살 벽화 3점, 북쪽 벽면에 비천 벽화 2점, 후불벽 뒷면에 수월관음벽화 1점 해서 모두 6점이다. 직지사 대웅전의 대형벽화 여섯 점을 방위와 공간에 따라 분류하면 사진 아래 표와 같다.

그런데 직지사 대웅전 내부 벽화 장엄에서 인상적인 장면이 몇 있다. 그중 하나는 한 법당에 수월관음도 대형벽화를 두 점이나 조성했다는 사실이다. 서쪽 벽면 중앙 칸과 후불벽 뒷면에 수월관음도를 그려뒀다. 서쪽 벽면의 수월관음도는 세로 148㎝, 가로 267㎝에 이르고, 후불벽 뒷면의 수월관음도는 세로 566㎝, 가로 742㎝에 이르는 초대형벽화다.

대형 수월관음벽화는 통상 후불벽 뒷면에 조성한다. 후불벽 뒷면의 수월관음도는 직지사 대웅전을 비롯해서 강진 무위사, 부안 내소사, 공주 마곡사, 청도 운문사 등 11곳에 현존한다. 특별히 서쪽 벽면에 대형 수월관음도를 조성한 사례는 두 곳에 불과하다. 직지사 대웅전과 보성 대원사 극락전뿐이다.

대원사 극락전의 서측면에 그린 수월관음도는 동측면의 달마대사도에 대응해 그린 산물로 이해한다. 관음보살과 달마대사는 각각 대승불교와 선불교의 상징적 존재이기도 하며 한편에선 달마대사를 관음보살의 화신으로 보기도 하는 까닭이다. 그 같은 관세음보살-달마대사 좌우 배치는 부산 범어사 대웅전과 청도 운문사 대웅보전에서도 나타난다.

그런데 직지사 대웅전 서쪽 벽면의 수월관음도는 유례가 없는 대단히 이례적인 구성을 보여준다. 문수보살, 보현보살도와 함께 나란히 조성했기 때문이다. 그것도 보현보살도와 문수보살도 중간에 수월관음도를 배치했다. 여기서 의문이 생긴다. 왜 관세음보살도는 불상 뒤 후불벽 뒷면에 조성하는 것일까? 또 문수, 보현, 관음 세 보살의 배치에서 왜 가운데 자리에 관세음보살을 봉안하는 것일까?

그 배치 원형은 석굴암에 있다. 석굴암에서 십일면관세음보살은 석가모니불 바로 뒷면에 자리한다. 문수-관음-보현보살의 배치 순서는 석굴암 주실의 세 보살 배치와 동일하다. 석굴암 주실의 세 보살 배치 역시 향우측에서 향좌측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문수-십일면관음-보현보살을 차례로 배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선재동자는 53선지식을 찾아 나선 순례 여정에서 첫 번째로 문수보살을 복성의 사라숲에서 만나 설법을 듣고는 발보리심을 낸 후 문수보살의 권유에 따라 선지식을 찾아 남쪽으로 순례를 시작한다. 덕운, 해운 비구들을 차례로 만나고 순례의 중간인 28번째로 찾아간 선지식이 보타낙가산의 관세음보살이었다. 순례의 마지막엔 53번째로 보현보살을 만나 보현행원의 설법을 듣고 입법(入法), 곧 진리의 세계에 들어갔다. 선재동자의 순례 과정도 문수-관세음-보현보살로 압축된다. 그것은 발보리심(문수보살)—보살행(관세음보살)—보현행원(보현보살)으로 이어지는 〈화엄경〉의 구조와 일치한다. 석굴암의 세 보살 배치는 물론 직지사 대웅전의 세 보살 배치도 〈화엄경〉의 구성에 따른 것이다.

문수—관음—보현보살의 배치 순서는 석굴암 주실의 세 보살 배치와 동일 벽화 배치 교의 〈화엄경〉 '입법계품' 용의 보주 공양은 관음께 귀의의 뜻



김천 직지사 대웅전 서측벽의 문수관음보현보살벽화. 위에서부터 문수보살, 관세음보살, 보현보살.

	벽화 수	벽화 내용		
서측면 3칸	3점	코끼리 탄 보현보살도	수월관음도	익룡 탄 문수보살도
북측면 좌우 1칸씩	2점	공양비천도(보주, 용뿔, 천도)		주악비천도(대금)
후불벽 뒷면 3칸	1점	용왕	수월관음	선재동자

직지사 대웅전 서쪽 벽면의 대형벽화는 문수·관음·보현보살벽화다.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은 머리 양쪽을 쌍상투로 묶은 동자형으로 표현했다. 천진난만하고 순수한 동자처럼 진리를 추구하는 보살행이 걸림이 없고 청정하기 때문이다.

문수보현보살도에서 통상 문수보살은 청색 사자를 타고 보현보살은 상아 여섯을 가진 흰색 코끼리 육아백상(六牙白象)을 탄 모습으로 표현한다. 직지사 벽화에선 보현보살은 육아백상을 타고 있지만 문수보살은 날개 달린 황룡을 타고 있어 이색적이다. 문수보살은 '문수달천진'의 경지로 신통한 까닭에 익룡마저 능수능란하게 다룬다. 익룡은 날개를 활짝 펴서 시공의 양변이나 경계에 걸림이 없다. 무애자재의 힘은 무상, 무아, 공의 지혜에서 나온다. 허공을 날아도 새는 발자국을 남기지 않는다. 유시유종은 성문 연각의 경계이고 무시무종은 보살행의 성취다. 문수보살벽화 속에 상구보리의 대자유가 있다.

특이한 것은 문수보살의 몸에는 광배가 없는데 보현보살은 두광은 물론 신광까지 갖춘 점이다. 중앙의 관음보살도 두광은 있지만 신광은 없다. 왜 보현보살만 두광과 신광을 갖추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끊임없는 보현행원이 성불의 길로 통하기 때문이다. 보현보살 뒤로 노을처럼 퍼지는 붉은 기운을 보라. 절대적인 기운으로 충만하다. 코끼리는 고개를 돌려 걸어온 억겁의 수행의 길을 돌아보고 있다. 보현행원의 원력으로 오직 하나의 길 일불승(一佛乘)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다.

두 보살 사이에 백의관음보살을 배치했다. 백의관음벽화의 공간 무대는 물결이 일렁이는 푸른 바다다. 〈화엄경〉 '입법계품'에 묘사하고 있는 보타낙가산의 암벽 장면과는 딴판이다. 아예 바다 한가운데다. 더구나 관세음보살과 선재동자는 물결이 일렁이는 바다 한가운데서 용의 몸통 위에 서 있다. 관세음보살은 용의 머리 위에 마련한 연화좌 위에 서 계시고 선재동자는 정병을 가슴에 안고 용의 몸통 위에 맨발로 서 있다. 용도 바다 물결처럼 용틀임해댄다. 사위가 온통 요동친다. 그런데도 고요하고 적막하다. 관음보살과 선재동자는 관조만 하고 말이 없다. "백의관음무설설(白衣觀音無說說) 남순동자불문문(南巡童子不聞聞)"의 경계다. 백의관음은 말한 바 없이 설하고 남순동자(선재동자)는 들은 바 없이 듣는다. 일체유심조이니 오직 마음이 지을 뿐이다. 언필칭 저 파도는 마음이 짓는 것이리라.

직지사 대웅전 벽화 중에서 또 하나 주목되는 장면은 세 칸의 대형 후불벽 뒷면에 그린 수월관음도다. 뇌록 안료의 붓질로 암청색 바탕칠을 한 후 먹으로 흑묘, 흑채해서 흑탱불화와 유사하다. 등장인물은 관세음보살, 용왕, 선재동자 셋이다. 세 칸의 벽면 칸마다 한 분씩 그렸다. 향좌측부터 용왕-관세음보살-선재동자를 그려 넣어 유례없는 대형의 먹빛 수월관음도를 완성했다. 무대 공간은 바닷가 보타낙가산이다. 하늘거리며 흘러내리는 사라 두건 차림의 수월관음은 바위 위에 고요히 앉아 계신다. 원유관을 쓴 용왕은 거센 파도 속에 요동치는 용의 몸통 위에 서서 관세음보살께 공양물이 담긴 쟁반을 올리고 있다.

공양물은 놀랍게도 생명력이 생생한 붉은 보주와 용의 뿔 '용각(龍角)'이다. 용이 자신의 상징인 붉은 보주와 용각을 바친다는 것은 자신의 전부를 바치는 것과 같다. 그것은 용왕의 모든 권능을 관세음보살께 귀의한다는 의미와 다름없다. 즉 관음보살의 수호신을 자처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용왕의 공양 장면은 재난으로부터 중생을 구제하는 관음보살의 능력을 암암리에 증명해 주는 극적인 장면으로 해석된다. 용왕의 뒤로는 바위틈에서 자란 청죽이 푸르다. 향우측의 선재동자는 바다에 피어난 푸른 연잎 위에 서 있다. 주름치마처럼 늘어트린 주홍빛의 하의가 인상적이다. 두 손엔 초록 잎이 무성한 버들가지가 꽂힌 커다란 검은 정병을 두 손으로 받쳐 들었다. 버드나무 가지 끝엔 관음보살의 분신이라는 파랑새가 앉아 있다. 관음보살과 선재동자는 서로 말이 없어도 정병의 버드나무는 늘 푸른 여름이고, 바위 푸른 대나무는 온통 봄빛이다. 대나무와 버드나무의 늘 푸르름이 대자대비 관세음보살의 감로다.

법의 세계에 들어가는 입법의 길은 '신해행증(信解行證)'의 보살행의 길이다. 진리의 가르침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진리를 이해하고 가르침을 삶 속에서 실천하면서 깨달음을 내 것으로 증득하는 것이다. 직지사 대웅전의 대형벽화는 신해행증의 보살행을 시각적으로 일깨운다. 문수보살은 가르침에 대한 믿음의 '신(信)'과 이해의 '해(解)'를 일깨우고, 관세음보살은 자비희사(慈悲喜捨)의 '행'을 가르치며, 보현보살은 보현행원으로 깨달음을 '증득'하는 길을 제시한다. 그 벽화는 58만7261자의 80권 〈화엄경〉의 가르침과 일맥상통한다. 직지사 대웅전 대형벽화 속에 〈화엄경〉이 펼쳐져 있다.



노재학 작가



인도 다람살라 달라이라마 친견 6일
진옥스님과 함께하는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 순례 일정입니다.
11월01일 출발~11월06일 도착(6일 일정)
■ 일정: 인천-델리-암리차르-다람살라-달라이라마 친견(법왕궁)-남걀사원,네충사원-암리차르-델리-인천
▶ 동참금 : 290만원(보시금 30만원 포함)



운성스님과 함께 떠나는 스리랑카 명상순례 8일
치유와 깨어남의 멘토 운성스님과 명상참선을 함께 하며, 불교성지 참배, 현지 위빠사나 수행센터 명상체험이 있는 멋진 순례 길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출발일 : 11월25일 출발~12월02일 도착
■ 일정: 인천-콜롬보-아누라다푸라-담불라-시기리야-폴론나루와-캔디-갈레-아훈갈라-콜롬보-인천
▶ 동참금 : 299만원

중국 실크로드 성지순례 10일
삼장법사 현장스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최고의 순례 길
10월14일 출발~23일 도착
▶ 동참금 : 369만원
■ 일정: 인천-서안(진시황병마용갱,화청지)-법문사(부처님불지사리)-천수(맥적산석굴)-난주(병령사석굴)-장액(대불사)-칠채산(일곱빛깔 무지개산)-가욕관·돈황(막고굴,명사산)-유원-투루판-우루무치(천산천지)-인천

중국 구화산, 보타산 6일
지장보살의 도량 구화산과 관음보살의 도량 보타산 순례
출발일 : 10월19일 출발~24일 도착
▶ 동참금 : 169만원

중국 아미산,낙산대불,대족석굴 5일
보현보살의 도량 아미산과 낙산대불, 중국 4대석굴중에 하나인 대족석굴 순례
출발일 : 10월21일 출발~25일 도착
▶ 동참금 : 문의

인도,네팔 불교성지순례 10일
11월21일 출발~30일 도착
■ 일정: 인천-델리-바라나시-보드가야-영축산-바이샬리-쿠시나가르-룸비니-기원정사-아그라-델리-인천
▶ 동참금 : 문의

미얀마성지순례 6일
12월01일 출발~12월06일 도착(6일간)
■ 일정: 인천-양곤-바간-헤호-양곤-인천
▶ 동참금 : 330만원

부탄성지순례 7일
히말라야의 불교왕국 부탄성지 순례입니다.
출발일 : 10월21일~27일(7일간)
■ 일정: 인천-방콕-부탄 파로-팀푸-푸나카-파로-카트만두-인천
▶ 동참금 : 문의

예약 · 상담 02)720-9600
마음여행 실크로드여행사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48, 에스엔에스빌딩 901호
마음여행사 검색